

전남대병원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

美 뉴스위크...내분비대사내과·소아청소년과 4년 연속 쾌거 화순전대병원 암분야 5년 연속...비수도권 유일·국립대병원 2위

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에 내분비대사내과·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암 분야까지 3개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암 분야는 5년 연속 선정됐으며 300위 내 의료기관

중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 또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만이 선정됐다. 21일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뉴스위크는 이번 평가를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와 함께 진행했으며, ▲의료종사자 4만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의료기관 국제 인증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 시

행 여부 등을 반영했다. 평가 결과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1계단 상승했으며, 소아청소년과는 185위로 전년도보다 1계단 오르는 등 2개 과 모두 4년 연속 세계 최고 전문병원에 선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의 암 분야는 116위로, 지난해 보다 4계단 상승했다. 해당 평가에서 순위에서 오른 16개 국내 병원들 가운데 8번째로 순위가 높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미국

과 일본, 독일 등 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전히 신뢰받고 높은 영향력을 가진 암 전문병원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내 순위 10위권 이내에 들 만큼 최고의 암 진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수년간 꾸준히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에 선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조선대병원, 개인보호구 교육 감염병전문 의료대응체계 구축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24일 "9월 한달간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6차례에 걸쳐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병원은 이날 광주감염병지원단 강사와 김미진 전남감염병지원단 강사를 각각 초빙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 구축사업 실무협의체 의료기관 29명(10개 기관), 원내 신종감염병 대응 인력 1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보호구 일반적 사용 원칙 및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방법 및 주의사항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실습 등이다. 윤나라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따른 투입 인력의 역할을 강화, 위기상황 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조금의 미흡함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 서구 소재 밝은안과21병원은 최근 개원 25주년 기념식을 갖고 케이크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주엽·정무오·주종대·반태수 원장, 김덕배 대표원장, 김성일 원장. <밝은안과21병원 제공>

밝은안과21병원, '개원 25주년 기념식' 가져

김덕배 대표원장 "안과 선도 병원 만들기"

광주 서구 소재 밝은안과21병원이 최근 개원 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김덕배 대표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밝은안과21병원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안과전문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해 준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 50년을 향해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 국내

외 안과 분야 선도 병원으로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주종대 초대 대표원장은 "병원 설립 과정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순간순간이 이어져 25년이 된 것 같다"며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밝은안과21병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안과21병원은 보건복지부 안과전문병원 5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3주기 연속 인증 등을 받으면 서의료인력, 시설, 의료질 등 안전성 및 전문성을 입증했다. /기수희기자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백세 체험'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최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백세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는 고령친화 산업지원센터, 광주시 광역치매센터와 협업해 장기요양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신체 상태 감각 기능 변

화 및 미래형 주거공간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 치매 돌봄 이해 및 기술, 영양 관리 교육 등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이번 교육으로 고령의 신체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마

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종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정욱 본부장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명절 연휴 이후 손 통증 '손목터널 증후군' 의심

'양 손등 맞대 1분 유지' 저림 등 있을때 치료해야

의료칼럼



박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경이 손목을 지나 제 1·2·3·4번째 손가락의 감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손가락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며, 손가락 저림은 손목을 움직일 때 야간에 심해진다. 이 중 소위 '명절 증후군'으로 불리는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은 이들이 많은데, 이는 귀성길에 장시간 운전 하거나, 명절 음식 준비 및 집안일로 손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의 손바닥쪽 부분에 위치한 굴근지대라는 섬유로 된 강한 띠가 있는데, 이 굴근지대에서 정중신경이 눌러 발생 하는 질환이다. 굴근지대 아래로 손가락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공간을 손목터널이라고 하며 정중신경이 터널에서 가장자리에 위치해 압박을 잘 받아 붙여진 명칭이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유발 요인은 다양하나 대개 손목의 과도한 사용과 손가락힘줄의 부종 및 염증이 흔하게 꼽힌다. 명절 음식 준비는 등 손을 부치거나 식재료를 볶는 등 손을 많이 움직이고, 무거운 냄비나 그릇을 들기도 해 손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 이렇듯 손목의 과사용으로 힘줄 및 인대에 긴장이 생기면 단순 관절통이고,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손가락 저림 및 통증이다. 정중신

경이 손목을 지나 제 1·2·3·4번째 손가락의 감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손가락에 저림과 통증이 나타나며, 손가락 저림은 손목을 움직일 때 야간에 심해진다. 손목터널 증후군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팔렌(Phalen) 검사'가 있다. 검사 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양쪽 손목을 굽혀 양쪽 손등을 맞닿게 하고 이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하도록 한다. 손가락에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나면 양성 반응으로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 관리가 필수적이다. 과도한 손목 움직임을 자제하며, 손을 사용할 때는 손목을 앞으로 굽히기보다는 뒤로 살짝 젖힌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손목 보호대나 받침대를 사용해 손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근력 약화가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면 비수술치료가 권장된다. 한의 치료에는 약침, 도침, 한약 등이 있다. 한약재를 정제추출한 약침액을 주입하는 약침 치료를 통해 정중신경의 신경염증을 줄여줄 수 있고, 도침으로 비후된 굴근지대 절개박리로 압박공간을 해소해 손목의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환자 개인에 맞춰 체질 한약 치료는 손목의 어혈을 풀어 통증 및 저림을 완화해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명절 이후 손목에 통증 또는 손가락 저림 증상 등이 있다면 단순 손목관절통이라 여기지 말고 가까운 한방병원에 내원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을 권한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